

보도해명자료 (18. 2. 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국내 철강업계 생존 달린 문제… 정부, WTO

제소 본격 논의” (18.2.19, 파이낸셜뉴스)

1. 기사내용

- 한·미 철강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.
- 이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수입 규제법인 ‘무역확장법 232조’ 보고서에 대한 제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, 평창 폐막 이전 제소할 수도 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한 **WTO 제소 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**
- 현재는 미국 상무부가 232조 관련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한 상황으로, 정부는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계와 함께 **미 정부, 의회, 업계** 등에 대해 **아웃리치 노력을 경주할 계획**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 장 (044-203-5770)
장재량 서기관 (044-203-5772)

